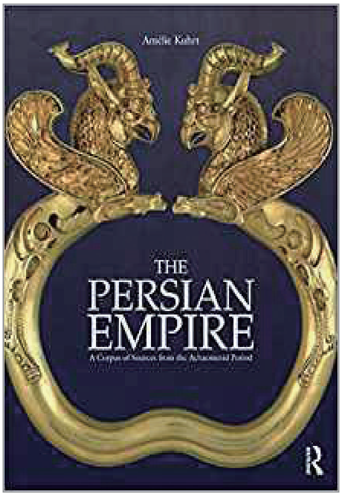

제목	The Persian Empire: A Corpus of Sources from the Achaemenid Period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07. 9. 2.
저자	Amélie Kuhrt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496
ISBN 또는 ISSN	978-0415552790

내용 요약

이 책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와 업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형태의 사료들을 모아놓은 글이다. 페르시아 제국에 관한 사료들이 부족하고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출판된 유익한 책이다. 총 4부 중 1부는 "제국이 형성되는 시대"에 관한 것으로서 키루스와 캄비세스 치하의 영토 팽창과 다리우스의 계승까지를 다루고 있다. 2부는 "아케메네스의 역사와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 다리우스 2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와 3세를 거쳐 아케메네스 제국이 몰락하기까지의 정치사를 서술하고 있다. 3부 "왕과 왕권"은 다양한 형태의 왕권, 궁정의 거주지, 궁정 관료, 왕실 여성, 왕실 연회, 법정 등에 대한 제국 이데올로기와 이미지화를 설명하고 있다. 4부 "아케메네스 제국의 조직"은 조세와 공납 등 제국의 자원과 재정 관리, 교통망, 관료 기록에 관한 사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아케메네스 제국에 대한 페르시아측의 기록은 부족하여 대부분 외국인, 특히 그리스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저자는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가령 헤로도토스 덕분에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페르시아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만 그리스 입장에서 페르시아 역사를 조금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고고학적 사료와 문헌 사료를 제공함으로써 페르시아 전쟁 후 페르시아의 해체가 아닌 영속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크세르크세스가 다리우스의 건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여러 종교적 의식을 지지하여 종교에서 왕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